

建築學的 解析에 의한 聖幕建築의 再現設計 基準設定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tandard Requirements of the Tabernacle's Representation Drawings
through Architectural Analysis

오태주* / Oh, Tae-Joo
이상호** / Lee, Sang-Ho

Abstract

The tabernacle architecture is the paradigm of the new testaments and the modern church, and has been from the temples to synagogues, the Old Testaments to the New Testaments, and from present to future. Nevertheless, research on the Tabernacles has never been studied architecturally but has only been researched Biblically or partially. This would be because people interested in the tabernacle lack in architectural knowledge, and architects would be limited theologically. Furthermore, the start of church architecture until now was the architecture of the Roman-court style and the Greece Temple as the exterior, such as the Basilica, a non-Christian, strangely styled piece of architecture, which was seen as the basis of the church architectural style, which is a great mistake, due to the effect of modern architectural educational system with the central figure of humanism and western styled architecture. The measurement and the pattern of the Tabernacle architecture were not recorded in the Bible in order to produce the shape of the Tabernacle. The "Architecture of God" was designed for the very first time on Earth so that He could dwell among His people.

키워드 : 건축, 교회, 성막

Keywords : Architecture, Church, Tabernacl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성막(성전)(mishkān)/Tabernacle)이란, 야훼(Yahweh)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신성한 제의장소를 말한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이며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레1:1~5) 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그의 택하신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25장~31장은 성막의 설계와 건축의 준비에 관하여, 32장~40장은 성막의 건축과 완성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계시 이후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대한 연구는 오직 성경적인 측면에서만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왔을 뿐 건축학적 연구가 없었다. 이는 성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건축학적 연구의 한계성, 그리고 건축가들의 성경적 연구의 한계성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부터 적용되어온 교회건축사적 연구에 따르면 교회건축의 시작을 카타콤(지하무덤교회)이후 로마법정의 형식과 외부적으로는 그리스 신전을 모방한 이교도적 이방건축인 바실리카 교회건축양식으로부터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커다란 이론적 오류(誤謬)를 넣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인본주의(人本主義)와 함께 일반 서양건축사(西洋建築史)를 중심으로 한 현대 건축교육 때문이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초의 교회건축인 성막을 건축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聖經)'이다. 왜냐하면 성막건축은 계시를 통한 설계에서부터 건축의 진행과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막과 그 기구(성구) 문양과 치수까지도 성경에 의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성막연구에 열의를 가진 사람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많은 성막의 그림(삽화)과 모형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대부분이 성경의 기록들과 상이할 뿐 아니라 형태나 상징에 있어서도 그 자료들(성막의 그림, 도면, 모형사진 등) 상호간에서 조차 불일치(不一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위대한 건축으로서의 성막 연구에 있어서 특히 건축가의 관점에 의한 건축학적인 해석(解

* 정회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 정회원, 홍익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析)이 요구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막에 대한 건축학적 개념과 성막에 적용된 「건축적 도량형(度量衡 weights and measures)」을 중심으로 건축학적으로 고찰하고 성막건축의 기능과 구성에 이어 성막건축의 의미와 건축학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1)성막건축의 표현특성을 도출하고 2)기존의 성막모형 자료들을 분석하여 3)성막건축의 재현설계(再現設計)의 방향 및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4)재현설계도의 제시를 통해 5)성막건축의 건축적 정체성을 정립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의 연구의 범위는

1)성막에 대한 건축학적 개념과 성막에 적용된 건축적 도량형(度量衡 weights and measures)을 중심으로 한 「건축적 고찰」

2)성막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연구

3)성막건축의 건축학적 의미와 구조 및 설계 등 「건축학적 분석」

4)성막건축의 「건축적 표현특성도출」 및 「기존 성막모형 자료(건축 및 기구(성구))의 분석」

5)이스라엘 현지답사를 통한 기존 성막모형의 설계 및 관련 역사적 고증들의 조사 및 분석과 「재현설계의 방향 및 기준설정」

6)성막건축의 「재현설계의 방향 및 기준설정」을 통한 「재현설계도(再現設計圖)의 제시」를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연구의 진행으로는 서론부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제시하며 제2장에서는 먼저 ‘성막은 건축인가?’라는 전제를 통해 성막건축의 건축학적 개념을 정리하고, 규빗의 용어와 개념 및 성막건축에 적용된 건축적 도량형(度量衡 weights and measures)을 중심으로 건축학적으로 고찰하며 제3장에서는 성막건축의 설계와 비례 및 특성을 건축학적으로 조사하고 제4장에서는 성막건축의 기준모형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대상 및 기준을 설정한 후 이스라엘 현지조사를 통해 1)기존 성막자료의 대한 분석에 의한 2)성막건축의 재현설계(再現設計)의 방향 및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3)재현설계도(再現設計, Representation Drawing)로 정리 한다. 끝으로 제5장의 결론부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성막건축 재현설계의 기준설정을 통한 성막의 건축적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성막건축의 건축학적 고찰

2.1. 성막(聖幕)은 건축인가?

성막은 건축인가? 사전적 해석으로서의 ‘건축(建築)’은 「건축물을 만드는 인간의 행위 또는 그 행위로 만들어 낸 건축물.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생활 장소로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활에 관계되며, 그 기술도 인간의 생활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8~9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찌니라..”라고 말씀하셨다.(Then have them make a sanctuary for me, and I will dwell among them. Make this tabernacle and all its furnishings exactly like the pattern I will show you.) 여기에서 ‘짓되’ ‘지을찌니라’ 와 영어성경의 ‘make’는 ‘짓다’ ‘건조하다’의 뜻으로 바로 ‘건축’을 의미하고 있다.

성막건축은 그 형태가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주어진 소재를 가지고 고정된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성막건축의 구조는 건축적으로 9개의 기둥과 기초 그리고 48개의 금으로 쌓 널판과 널판기초로 구성되고 각 널판은 2개의 측과 5개의 띠로 견고히 연결되어 있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동식 건축물인 것이다.

2.2. 성막의 건축학적 도량형(度量衡)

(1) 규빗(**קָבִּים** ('am māh))의 용어와 개념

‘규빗(cubit)’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음역이 아닌 ‘라틴어’의 음역이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우리가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אָמָה** : ' am māh)”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에서는 “아마”를 “페쿠스”라고 번역하였다. “아마”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사용된 길이의 단위로 바빌로니아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이집트에서도 이 비슷한 척도가 사용되었었다고 한다. 규빗의 정확한 치수가 얼마인지를 알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견적(見積)하고 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조금은 막연한 전박(前膊)의 길이였다. 신명기 3장 11절¹⁾의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이라는 말도 규빗이 대략적인 치수임을 일러준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일찍부터 ‘왕궁 규빗’과 ‘일반 규빗’이라는 이중 단위를 가지고 있었고, 규빗이라는 같은 말을 쓰면서도 지방에 따라 시대에 따라 41cm에서 52cm까지 그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건축적 길이 단위인 규빗의 종류와 척도의 기원을 조사 분석하면 아래의 <표 1>과 같으며 이 분석의 결과를 규빗의 기준치수로 본 논문에 적용코자 한다.

1)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나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아홉 규빗이요 광이 네 규빗이니라」 (신 3:11)

<표 1> 규빗(Cubit)의 종류와 척도의 기원

	구 분	치 수	치수의 기준	치수의 근거	일반적 규빗의 적용
(고대) 쿠비트	이집트 쿠비트	52.4cm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의 거리	BC3000년경 고대민족이 사용함	1규빗에 한 손바닥 넓이(약7.4cm)를 더한 것으로 일반적 규빗으로 적용되지 않음
	바벨로니아 쿠비트	53.1cm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의 거리		
	이집트 작은 쿠비트	37.4cm	20디지트(1디지트는 손가락 한 개의 폭)		
규빗 (Cubit)	이집트 바벨로니아 규빗	43.18~53.34cm (43~53cm) m	팔꿈치(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고대 이집트, 바벨로니아	45.7cm
	왕궁규빗과 일반규빗 (바벨로니아)	41~52cm m	왕궁과 일반백성들은 구별하여 이중단위로 사용함	고대 바벨로니아	이중작 단위로 사용되는 일반적 규빗으로 적용되지 않음
	노아의 빙주에 사용된 규빗	2m736cm m (2,736cm m)	2m736cm m (2,736cm m)	창6:16 노아의 방주시대부터 적용	44.45cm
다른 규빗 (Other Cubit)	에스겔규빗	52.5m	7손 넓이	에스겔40:5	1규빗에 한 손바닥 넓이(약7.4cm)를 더한 것으로 일반적 규빗으로 적용되지 않음
	신약시대 규빗	55cm	사람의 보통 규빗	신명기3:11	
(고대) 더블 규빗	오리엔탈 더블 규빗	91.44cm (45.75cm m×2)	1규빗의 두배	그리스 로마를 거쳐 유럽에 전파됨	현재의 약드와 피트의 기준이 됨

위의 도표의 분석에 의하면 고대 쿠비트 및, 다른규빗과 같이 일반규빗에 비해 '한 손바닥 크기(handbreadth=약7.4cm)'만큼 더 크거나 더블규빗 등과 같이 특수한 치수를 가진 규빗, 이집트와 바벨로니아의 왕궁규빗이나 일반규빗처럼 이중단위의 규빗을 제외한 1)이집트와 바벨로니아 규빗의 치수는 45.7cm이며, 2)성경의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와 출애굽기의 성막 등에서 건축적 척도로 적용된 규빗(Cubit)은 44.45cm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이 두 치수를 평균하면 ($45.7\text{cm}+44.45\text{cm}\div 2=\text{평균값}$) 이므로 결국 1규빗(1 Cubit)=45.08cm가 도출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1규빗을 약 45cm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규빗(Cubit)의 역사적 배경

고대 이집트와 바벨로니아에서는 건축기술과 함께 수(數)의 계산 기술도 상당히 진보되었다고 하며 길이의 단위로서는 '규빗'(cubit)의 단위가 사용되었다. 특히 성막건축의 길이단위인 '규빗'은 성경적으로 볼 때 노아의 방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노아는 방주를 제작하기 위한 척도로 '규빗'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노아의 손자인 셈의 아들 엘람족속이 남긴 '바벨탑'(BC3,500~3,000)이라고 불리는 '지구라트'(Ziggurat)의 유적의 건설에도 '이집트, 바벨로니아 규빗'이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고대 이집트 왕조(BC3,000)에서도 이 척도가 사용되었다. 따라

서 '규빗'의 척도(尺度)는 BC1,876년부터 BC1,446년까지 이집트에서 거주하던 이스라엘백성들이 사용해오던 건축적 척도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백성들이 출애굽 한 이후 하나님의 명령으로 건설되어 BC1445년에 탄생한 성막건축의 건축적 척도가 되었다.

다음의 <표 2>는 성막의 건축적 척도인 '규빗'이 고대 노아의 방주로부터 성막의 건축에 이르기 까지 어떻게 변천되고 적용되어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도표화한 것이다.

<표 2> 성막의 건축에 사용된 건축적 척도(규빗)의 역사적 배경

	노아의 방주	고대 바벨로니아의 탄생과 바벨탑 사건	고대 이집트 왕조의 출현	이스라엘의 애굽 거주	출애굽	성막의 건축
추정 연대	BC5000 ~4000 (?)	BC3500 ~3000	BC3000	BC1876 ~1446	BC1446	BC1445
성경 및 고고학적 근거	노아의 의한 방주의 건설	노아의 손자 셈의 아들 엘람족속이 '지구라트(Ziggurat =바벨탑)' 유적을 남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이집트 건설	아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됨	모세에 의한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건설함
성경적 기록	창6:14~16	창11:1~9	-	창46:7	출12:37	출40:33
방주의 건설에 규빗(Cubit)의 척도가 사용됨	이집트, 바벨로니아 규빗(45.7cm)의 척도가 사용됨			성막의 건축에 규빗(Cubit)의 척도가 사용됨		
치수	44.45cm	45.7cm	-	-	-	44.45cm (45cm)

이상의 연구로 보아 성막의 건축에 사용된 길이단위인 '규빗'이 노아의 방주(창6:14~16)로부터 고대 바벨로니아와 고대 이집트의 건설의 과정을 거쳐 출애굽 이후 건설된 성막과 가나안 정복 후 성전(솔로몬성전)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건축적 척도(尺度)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성막건축의 건축학적 분석

3.1. 성막건축의 설계

(1) 성막건축의 설계개요

BC1445년 시내 산에서 야훼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성막건축의 설계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1절부터 40장 38절까지에 걸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성막의 설계는 100규빗(45m)×50규빗(22.5m)의 올타리에 10규빗(4.5m)×30규빗(13.5m)의 성소(지성소)의 규모로서 1)성막뜰, 2)성소, 3)지성소의 공간과 그 기구(sacred utensil)들로 되어 있다.(출25:1~27:21) 하나님은 그의 대행자이며 종인 모세에게 성막건축의 건축양식과 치수, 문양과 재료 등 그의 설계를 말씀과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으며(출25:8~9) 그의 건축가 브살렘과 조각가 오홀리암에게 성막건축

의 자세한 사양들을 따라 건축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 하셨다(출35:30-35, 36:1). 아래의 <표 3>은 성막건축의 설계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순서는 성경에 기록된 순서에 의함.)

<표 3> 성막의 설계개요(출25장-3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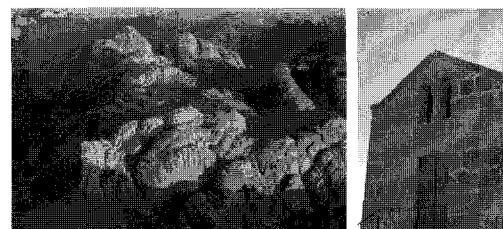
구분	설계부분	내 용	참조
성소	건축	널판 (48개) 1)넓 판의 폭1.5규빗(675mm)×높이 10규빗(4.5m) 2)총 48개의 넓판	출26:15~24
	기구 (성구)	정금등대 (금촛대) 1)높이3규빗(1,350mm)×폭2규빗(900mm) 2)7개의 가지: 살구꽃의 꽃받침 형태	출25:31~37
	침술병상 (성구) (성구)	1)길이 2규빗(900mm)×폭 1규빗(45cm)×높이 1.5규빗(675mm)	출25:23~29
	분향단 (금황단)	가로 1규빗(45cm)×높이2규빗(900mm)	출30:1~5
지성소	기구 (성구)	휘장 1)청, 흑, 자색 실과 가늘게 끈 베실로 장을 싸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음	출26:36~37
	법궤	1)길이 2.5규빗(1,125mm)×폭 1.5규빗(675mm)×높이 1.5규빗(675mm) 2)안팎이 정금으로 쌓여 있고 금으로 된 테두리	출25:10~16
	속죄소	1)길이 2.5규빗(1,125mm)×폭 1.5규빗(675mm)×높이 1 규빗(450mm) 2)상부에 두 그룹(사람의 형상)이 날개를 맞대고 앉아 있는 형상	출25:17~21
성막	건축	울타리 (56개 기둥) 1)울타리의 크기는 100규빗(45m)×50규빗(22.5m) 2)56개의 사각기둥: 가로세로 1/4규빗(112.5mm)×높이5규빗(2.25m) 3)기둥들은 기둥받침에 고정 4)가름대와 고리로 연결됨	출27:9~13
	기구 (성구)	성막 뜰문 1)폭20규빗(9m)×높이 5규빗(2.25m) 2)4개의 기둥으로 구성	출27:16~19
	법궤	1)가로세로5규빗(2.50m)×높이3규빗(1,350mm) 2)상부와 하부가 분리 3)네 귀퉁이에 뿔이 달림	출27:1~8
	물두영	1)자루이 4규빗(1,800mm)×높이 2규빗(900mm) 2)하부받침의 분리	출30:17~18
종공		중공 및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 (출40:33, 출40:34~38)	

(2) 성막건축의 설계특성

성막건축은 모세가 시내산²⁾ (Mt. Sinai / 아랍어명: 게발 무사(Gebal Musa))에서 40일 머무르는 동안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성막건축의 설계를 말씀과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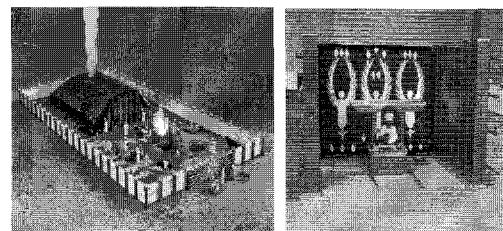
2)‘시내(Sinai)’는 히브리어로 ‘가시나무 숲’을 뜻하는데 시내산(Mt. Sinai)은 시내광야의 산악지대에 있는 한 산이라는 것 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오늘날 가장 유력시 되는 견해는 시내산을 파이란 오아시스를 지나면 나오는 호렙산 줄기의 최고봉 무사산(아랍명 Jebel Musa(모세의 산); 2286m)과 그로부터 3.2km 서남쪽에 있는 카타린산(아랍명 Jeble Katarin; 2,621m)과 서북쪽에 있는 ‘拉斯 에스 사프사페(Ras es-Safsafeh; 1993m) 사이의 세정상증 한 곳으로 잡고 있다. 전통적인 주장은 무사산이라고 생각된다. 이 ‘무사산’ 동쪽 기슭에 있는 그리스정교의 성(聖)카타리나 수도원 서고에서 1844년 시나이 사본이 발견되었다.

림자라...”(히 8:5). 고 하여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림 1> 모세가 성막건축의 설계를 계시 받은 시내산과 모세기념교회
(그림출처 : 시내산 현지답사 촬영 2006. 09. 20.)

성막건축은 하나님의 직접 설계하심으로 강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성경 히브리어 8장 2절에 따르면 “...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언급되어 있어 성막의 건축은 물론, 성막 안에 있는 각 기구들까지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성막(左)과 지성소(右)
(그림출처: J. Rouw 저, 황금의 집, 서울:전도출판사, 1981-스위스성막모형)

그러므로 성막건축의 설계는 모세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친히 설계 하시고 문양과 재료 그리고 치수까지도 자세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건축 작품인 것이다(출36:1~39:43). 따라서 성막건축의 모든 건축양식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시로 보여 주신 것으로 사람이 아무것도 첨가하거나 생략할 수 없었다.³⁾

3.2. 성막건축의 비례 및 특성 분석

(1) 평면 및 기구(성구)의 비례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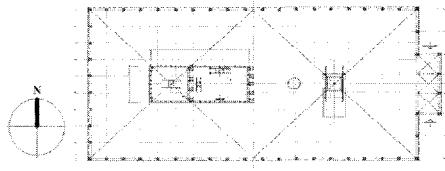
1) 성막건축의 평면

성막건축의 설계는 크게 번제단을 중심으로 한 성막 뜰과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성소와 지성소)으로 구별된다. 성막의 문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막의 각 요소(집기)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성막의 울타리는 장방형으로 100규빗×50규빗(45m×22.5m)이며 그것은 정방형의 50규빗×50규빗(22.5m×22.5m)을 두 개 합쳐 놓은 것과 같다. 아울러 특이한 것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가로×세로가 같은 정 방형으로 성막의 지성소는 크기가 12×12규

3)출25:40, 계22:18~19, 마5:18

빗(5.4m×5.4m)이다.

아래의 <그림 3>은 성막의 평면비례와 과 각 성막기구들의 배치의 비례를 분석 한 성막건축의 설계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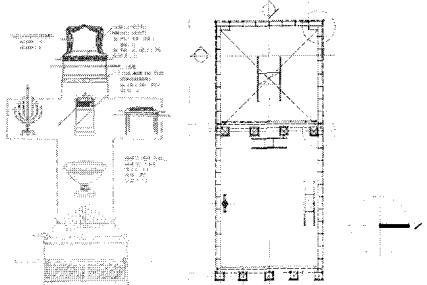
<그림 3> 성막과 성막기구들의 평면비례
(그림출처: 재현설계도/ 본 논문 부록-1).

2) 성막건축의 기구

정방형의 설계 형식은 물두명, 범케(속죄소), 정금등대(금촛대)를 제외한 성막의 기구들(번제단, 진설병상, 분향단)에서도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진설병상(떡상)은 2×1규빗(90cm×45cm)으로 두 개의 정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번제단 5×5규빗(2.25m×2.25m)과 분향단도 1×1규빗(45cm×45cm)으로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

(2) 건축의 배치 및 비례 분석

성막은 번제단을 중심으로 한 성막뜰과 지성소의 범케를 중심으로 한 성소(지성소)의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각각 정방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막의 각 기구들은 <그림 4>와 같이 성소를 중심으로 십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그림 4> 십자형기구배치와 성소 및 지성소의 평면비례
(그림출처: (좌)J. ROUW 저, 황금의 집, 서울:전도출판사, 1981
(우)재현설계도/ 본 논문 부록-1)

성소의 부분은 길이 30규빗(13.5m), 폭12규빗(5.4m), 높이 10규빗(4.5m)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12규빗×12규빗(5.4m×5.4m)의 정방형의 형식으로 설계 되어 있다. 성막건축의 배치 및 평면을 통해 성막건축의 비례 및 평면비례를 종합 분석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성막건축의 배치 및 비례 분석

구분	성막의 설계도	분석
1. 성막의 외관 및 구조		<p>1) 성막의 개요/ 성막은 동과 서가 각각 100규빗(45m)이고, 남과 북이 각각 50규빗(22.5m)인 장방형의 56개의 기둥이 있는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다.</p> <p>2) 성막의 설계/ 성막의 설계는 크게 번제단을 중심으로 한 성막뜰과 범케를 중심으로 한 성막(성소와 지성소)으로 구별된다.</p> <p>3) 성막의 문/ 성막의 문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막의 각 요소(접기)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p>
2. 성막의 평면과 비례		<p>1) 평면계획/ 성막의 울타리는 장방형 100규빗X50규빗(45mX22.5m)으로 그것은 정방형 50규빗X50규빗(22.5mX22.5m)을 두 개 합쳐 놓은 것과 같다. 떡상은 2×1규빗(90cmX45cm)으로 두 개의 정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번제단 5×5규빗(2.25mX2.25m)과 향단 1×1규빗(45cmX45cm)도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p> <p>2) 울타리/ 울타리 모양은 남북이 각각 100규빗(45m)으로 20개씩 놋기둥이 서있고 동서가 각각 50규빗(22.5m)으로 10개씩의 놋기둥이 서 있다.</p> <p>총 56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동쪽의 성막뜰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마포장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성막뜰문은 4개 기둥에 20규빗(9m) 폭의 휘장으로 되어있다.</p>
3. 성소와 지성소		<p>성소 및 지성소는 총 48개의 널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쪽 널판은 8개의 널판에 좌우 모서리 2개의 널판은 두 겹의 두께로 되어 있다.</p> <p>범케가 있는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으로 성막뜰의 지성소는 크기가 12X12규빗(5.4mX5.4m)이다.</p> <p>(참고로 솔로몬 성전안의 지성소도 20X20 (9mX9m) 규빗으로 정입방체이다. (왕상 6:20))</p>
4. 성막기구들의 도해		<p>구약시대의 성막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와 예수그리스도의 예표라 할 수 있다. 성막은 동쪽 문에서 '나는 문이니' 하신 예수를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명에서 성령을 받고 성소에 들어서면 오른편진설병에서 말씀을 먹고, 원쪽 금등대에서 사명을 받고, 지성소 휘장 앞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범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p> <p>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형상의 성막기구들을 통하여 민민에게 복음을 보여 주셨다.</p>

(그림출처 : 1~3번 그림 : 재현설계도/ 본 논문 부록-1,

4번 그림 : 한익희 저,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 서울:큼란출판사, 2002)

4. 재현설계(再現設計)의 방향 및 기준설정(基準設定)

4.1. 성경자료로서의 성막모형의 분석

(1) 분석의 필요성과 기준

1) 성막모형 분석의 필요성

이전까지의 성막연구와 모형제작의 목적은 오직 교회 및 성경교육기관의 성막교육을 위한 신학적 자료였으며 그 교육 자료로서 모형, 삽화그림, 모형사진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성막교육에 의욕을 가진 교회관계자 및 신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1/5~1/25의 축소된 모형(스위스성막, 성막모형전시관(한국))이나 성막관련 저서의 설명 자료로서의 삽화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가족용 조립 장난감형태의 성막모형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실물크기의 모형이 이스라엘(Timna)

성막)을 비롯한 몇몇의 국가에서 제작되었으나 그 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의 모형의 형태를 확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도면이나 건축적 지식 없이 비(非)건축적으로 철제 및 플라스틱으로 조합하고 초라하게 제작된 실물 및 축소형태의 성막모형은 각 나라 및 제작자(저자)에 따라 치수, 비례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을뿐더러 그 모형들 상호간에도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장에서는 1)팀나성막(이스라엘), 2)스위스성막, 3)K-성막수양관(한국), 4)S-성막복음센타(한국)의 성막모형들에 대하여 「성경 출애굽기의 기록」을 기준으로 모형들의 형태 및 비례 그리고 치수를 조사하여 성막건축 재현설계의 기준설정을 위한 성막모형의 분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막모형 분석의 기준

성경적 자료로서의 성막의 건축부분은 1)성막의 평면 2)성소와 지성소 3)성막뜰문과 울타리의 3부분으로 아래의 <표 5>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5> 성막모형자료의 건축부분의 분석기준

순서	도면명	주요 분석부분	성경적 근거
1	성막의 평면	1)울타리기둥의 개수(56개)	
		2)성막뜰문의 4기둥 및 휘장의 폭	기둥/출27:18~19
		3)뜰문 좌우의 3기둥 및 휘장의 폭	
2	성소 및 지성소	1)성소(지성소)널판의 개수(48개)	
		2)모서리 2겹 두께 널판의 유무	넓판/출26:15~25 띠/출26:26~30
		3)널판과 널판받침의 연결부 상세	
3	성소 및 지성소의 기둥	1)기둥위 가름대의 존재여부	울타리/출27:9~13,
		2)기둥(기둥머리)의 오더형태	출27:18
		3)기둥받침의 연결 및 받침의 형태	성막뜰문/출27:16~17

성막건축의 기구(성구:Sacred utensil)부분의 분석은 1. 번체단, 2. 물두명, 3. 정금등대(금 촛대), 4. 진설병상(떡상), 5. 분향단(금향단), 6. 속죄소(은혜소), 7. 범궤(언약궤)의 7개 부분으로 아래의 <표 6>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6> 성막모형자료의 기구(성구)부분의 분석기준

순서	도면명	주요 분석부분	성경적 근거
1	번체단	1)번체단의 치수	출27:1,
		2)번체단의 형태	38:1~9
		3)문양 및 장식	
2	물두명	1)물두명의 치수(치수의 근거)	
		2)하부구조의 형태	출30:17~21, 40:31~32
		3)문양 및 장식	
3	정금등대(금촛대)	1)정금등대(금 촛대)의 치수	출25:31~40,
		2)장식의 형태(살구꽃)	출37:17~24
		3)받침대의 형태	
4	진설병상(떡상)	1)진설병상(떡상)의 치수	
		2)문양 및 장식	출25:23~30
		3)다리의 형태	
5	분향단(금향단)	1)분향단의 치수	출30:1~5, 37:25~29
		2)문양 및 장식	
		3)상부의 테두리 형태	
6	속죄소(은혜소)	1)속죄소의 그룹의 형상(사람의 형상)	출25:17~22
7	범궤(언약궤)	1)범궤와 속죄소의 치수	출25:10~16
		2)문양 및 장식	

(2) 분석대상 성막모형의 선정

성막모형의 분석대상은 먼저 해외와 국내(한국)의 사례를 각각 2개로 선정하고 이를 다시 축척을 기준으로 실물크기와 축소크기의 모형으로 각각 2개 분석대상으로 총 4개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의 팀나성막의 경우 실제 당시 성막이 세워진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 실물크기의 모형이며 스위스성막의 경우 1/25의 축소 모형이나 정교함이 뛰어나서 성막관련(신학)문헌에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한국)의 경우 최초로 만들어진 1/5축소 모형으로 K-성막수양관 성막모형(경기도 소재)이 있으며 최근에 실물크기로 실내에 전시관형태로 만들어진 S-성막복음센타 성막모형(경기도 소재)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 성막모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분석대상 성막모형자료의 분류

	분류	성막모형	크기	전시형태	장소
1	해외	팀나(Timna)성막	실물	팀나광야	이스라엘
		스위스성막	1/25축소	모형전시관	스위스
3	국내(한국)	K-성막수양관	1/5축소	교회부속	한국
		S-성막복음센타	실물	모형전시관	한국

(3) 성막과 기구(성구)모형의 분석

분석대상 성막모형들에 대한 분석은 규모여하에 관계없이 오직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분석되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성막건축의 치수, 문양 그리고 설계와 구조는 결코 성막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땅위에 최초로 설계되고 지어진 ‘하나님의 건축’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성막건축은 기둥과 기초, 벽체와 지붕의 구조를 가진 울타리 안에 지어진 실제적인 건축인 것이다. 기둥의 기초와 벽체의 역할을 하는 널판은 각각의 은으로 제작된 받침에 의해 땅에 묻혀 견고히 세워졌으며 48개의 널판은 각각 2개의 축과 5개의 금으로 쌓은 조각목의 띠와 금 고리로서 한 개의 널판에 각각 7군데에서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연결되었다. 또한 성소의 5개의 기둥과 지성소의 4개의 기둥은 금 가름대에 의해 각각의 기둥 및 좌우 널판과 연결되었으며 연속기둥구조에 맞추어 휘장이 문을 대신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막모형(실물 및 축소형태)들을 성막건축에 대한 하나의 선행적 연구로 간주하고 성막모형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막건축은 성경적 기록에 의해 현존하는 하나님의 건축으로서 성막의 재현설계를 위한 성경기록의 해석은 반드시 「건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기존의 비(非)건축적 연구에 의한 성막모형들의 분석에 따르

면 1)성막건축의 울타리 기둥의 수(56개), 2)성막뜰문의 형태(분리형) 및 뜰문기둥의 수(4개), 3)성소 및 지성소의 치수(12규빗), 4)지성소의 기둥 역할을 하는 서쪽널판(8개)의 양측모서리의 2겹 두께의 널판(2개) 등 여러 부분에서 오류를 넣고 있다(출27:9-19/출26:15-26).(아래 표4-4참조)

둘째, 성막건축의 재현은 성경적 기록에 따른 설계도면의 제작, 정확한 건축의 자재, 재료의 결정, 당시의 기후조건과 건축기술을 고려한 적합한 건축적 구조의 결정과 시공, 각 기구(성구·聖句)의 제작과정의 건축적 프로세스에 의해 '건축적으로 재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적 요소들이 배제되거나 생략된 채 더 이상 비(非)건축적인 해석으로 인한 오류, 영감에 의존하여 무절제적인 성경교육용 자료(실물 및 축소모형)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성막건축의 재현은 오직 성경 기록을 근거로 제작된 설계도면에 의해 평면형태, 문양, 재료, 치수, 구조, 기구의 배치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람의 불분명한 영감이나 개인적 소견 등의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넷째, 성경적 기록에 의해 현존하는 하나님의 건축으로서의 성막건축이 일부 조악(粗惡)한 모형(模型)으로 대체되어 있는

하고 분석하여 실제 건축물로서의 성막건축을 ‘제현설계로서 현실에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기존 성막조형물을 비교하고 정리’하고 ‘지속적인 건축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성막모형들의 건축부분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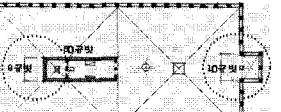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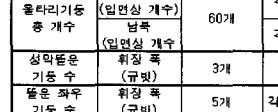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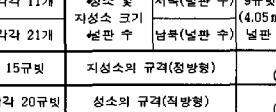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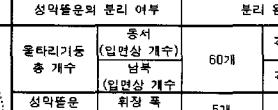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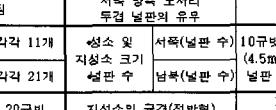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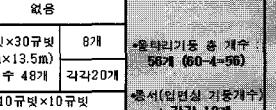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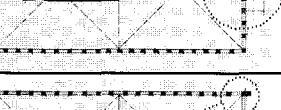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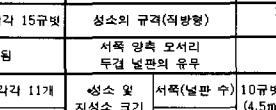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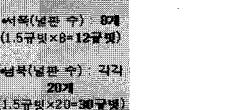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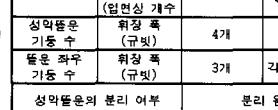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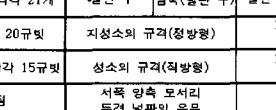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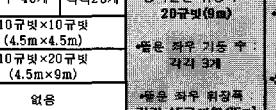
4.2. 재현설계의 방향 및 기준설정(基準設定)

본 장에서는 성막건축의 재현설계도의 작성을 위한 방향설정을 위하여 먼저 재현설계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재현설계의 기준설정을 위하여 재현설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성막건축의 표현특성과 성막모형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부분을 「(3)성막건축 재현설계의 기준설정」과 「(4)성막기구(성구) 재현설계의 기준설정」으로 구분하고, 각 장을 다시 1)재현설계 요구사항, 2)재현설계의 기준설정 및 3)재현설계도의 이미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용어의 정리

‘재현’(再現;Representation)⁴⁾이란 ‘다시 나타남’의 뜻으로 ‘나타남’(reappearance; reemergence; readvent; (a) revival)과 ‘나타냄’(re-enactment; (a) reproduction)이 있으며 사전적으로 미

<표 8> 성막모형의 각 평면 비교분석표

구분	성막모형 평면도		성막모형 풀마리 및 성막풀운		성막모형 성소 및 지성소		설정의 기록 (총27.9~19/총26:15~25)	
	출판지	설명	종류	수량	크기	설명		
이스라엘 팀너성막		동서 출타리기동 종 개수 남북 (입현상 개수)	60개	각각 11개 각각 21개	*성소 및 지성소 크기 설판 수	서쪽(남판 수) 남북(남판 수) 남판 수 48개	9구릿×30구릿 (4.05m×13.5m) 9구릿×21구릿 (4.05m×9.45m)	6개 각각 20개
		성막풀운 기동 수 풀운 좌우 기동 수	3개	15구릿	지성소의 규격(정방형)	9구릿×9구릿 (4.05m×4.05m)	9구릿×9구릿 (4.05m×4.05m)	총27.9~19
		성막풀운의 분리 어부	5개	각각 20구릿	성소의 규격(직방형)	9구릿×21구릿 (4.05m×9.45m)	9구릿×21구릿 (4.05m×9.45m)	총26:15~25
		성막풀운의 분리 어부	분리 됨		서쪽 양쪽 모서리 두개 널판의 유무		없음	
		성막풀운 기동 수 풀운 좌우 기동 수	3개	각각 15구릿	성소의 규격(직방형)	10구릿×10구릿 (4.5m×4.5m)	10구릿×10구릿 (4.5m×4.5m)	
		성막풀운의 분리 어부	분리 안됨		서쪽 양쪽 모서리 두개 널판의 유무		없음	
스위스성막		동서 출타리기동 종 개수 남북 (입현상 개수)	60개	각각 11개 각각 21개	*성소 및 지성소 크기 설판 수	서쪽(남판 수) 남북(남판 수) 남판 수 48개	10구릿×30구릿 (4.5m×13.5m) 10구릿×30구릿 (4.5m×13.5m)	8개 각각 20개
		성막풀운 기동 수 풀운 좌우 기동 수	5개	20구릿	지성소의 규격(정방형)	10구릿×10구릿 (4.5m×4.5m)	10구릿×10구릿 (4.5m×4.5m)	총서(입현상 기동 수) 각각 10개
		성막풀운의 분리 어부	3개	각각 15구릿	성소의 규격(직방형)	10구릿×20구릿 (4.5m×9m)	10구릿×20구릿 (4.5m×9m)	풀운(입판 수) 8개 (1.5구릿×8=12구릿)
		성막풀운 기동 수 풀운 좌우 기동 수	3개	각각 15구릿	성소의 규격(직방형)	10구릿×10구릿 (4.5m×4.5m)	10구릿×10구릿 (4.5m×4.5m)	성막(입판 수) 각각 4개 (1.5구릿×20=30구릿)
		성막풀운의 분리 어부	분리 됨		서쪽 양쪽 모서리 두개 널판의 유무		없음	성소의 규격(직방형) 12구릿×12구릿 (5.4m×5.4m)
		성막풀운 기동 수 풀운 좌우 기동 수	3개	각각 15구릿	성소의 규격(직방형)	10구릿×10구릿 (4.5m×4.5m)	10구릿×10구릿 (4.5m×4.5m)	성소의 규격(직방형) 12구릿×12구릿 (5.4m×5.4m)
K-성막수영 관 성막		동서 출타리기동 종 개수 남북 (입현상 개수)	60개	각각 11개 각각 21개	*성소 및 지성소 크기 설판 수	서쪽(남판 수) 남북(남판 수) 남판 수 48개	10구릿×30구릿 (4.5m×13.5m) 10구릿×30구릿 (4.5m×13.5m)	8개 각각 20개
		성막풀운 기동 수 풀운 좌우 기동 수	4개	20구릿	지성소의 규격(정방형)	10구릿×10구릿 (4.5m×4.5m)	10구릿×10구릿 (4.5m×4.5m)	성막풀운 기동 수 20구릿(8m)
		성막풀운의 분리 어부	3개	각각 15구릿	성소의 규격(직방형)	10구릿×20구릿 (4.5m×9m)	10구릿×20구릿 (4.5m×9m)	풀운 좌우 기동 수 각각 3개
		성막풀운 기동 수 풀운 좌우 기동 수	3개	각각 15구릿	성소의 규격(직방형)	10구릿×10구릿 (4.5m×4.5m)	10구릿×10구릿 (4.5m×4.5m)	풀운 좌우 휘장 폭 각각 15구릿(6.75m)
		성막풀운의 분리 어부	분리 됨		서쪽 양쪽 모서리 두개 널판의 유무		없음	성소의 규격(직방형) 12구릿×12구릿 (5.4m×5.4m)
		성막풀운 기동 수 풀운 좌우 기동 수	3개	각각 15구릿	성소의 규격(직방형)	10구릿×10구릿 (4.5m×4.5m)	10구릿×10구릿 (4.5m×4.5m)	성막 풀운의 분리 어부 분리 됨
온-성막복음 센타 성막		동서 출타리기동 종 개수 남북 (입현상 개수)	60개	각각 11개 각각 21개	*성소 및 지성소 크기 설판 수	서쪽(남판 수) 남북(남판 수) 남판 수 48개	10구릿×30구릿 (4.5m×13.5m) 10구릿×30구릿 (4.5m×13.5m)	8개 각각 20개
		성막풀운 기동 수 풀운 좌우 기동 수	5개	20구릿	지성소의 규격(정방형)	10구릿×10구릿 (4.5m×4.5m)	10구릿×10구릿 (4.5m×4.5m)	성막풀운 기동 수 10구릿(5m)
		성막풀운의 분리 어부	3개	각각 15구릿	성소의 규격(직방형)	10구릿×20구릿 (4.5m×9m)	10구릿×20구릿 (4.5m×9m)	풀운 좌우 휘장 폭 각각 15구릿(6.75m)
		성막풀운 기동 수 풀운 좌우 기동 수	3개	각각 15구릿	성소의 규격(직방형)	10구릿×10구릿 (4.5m×4.5m)	10구릿×10구릿 (4.5m×4.5m)	성막 풀운의 분리 어부 분리 됨
		성막풀운 기동 수 풀운 좌우 기동 수	3개	각각 15구릿	성소의 규격(직방형)	10구릿×10구릿 (4.5m×4.5m)	10구릿×10구릿 (4.5m×4.5m)	성막 양쪽 모서리 투강 넓판의 유무 : 있음
		성막풀운의 분리 어부	분리 됨		서쪽 양쪽 모서리 두개 널판의 유무		없음	

* 성장 기록상 성 악 울타리 기둥의 개수는 등, 서쪽 울타리 각각 10개 남.북 측 울타리 각각 20개로 기록되어 있고(총 27.9~13) 울타리 기둥의 총 개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 악 울타리 기둥의 4면의 개수는 건축적인 「평면 및 일 면식의 개수」로 보아 울타리 4면 모서리 기둥 2개를 더해 총 56개(60-4=56기둥)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성소 및 지성소 남편의 총 개수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적으로 48개(20+20+8=48)의 남편에 상소 및 지성소의 코기는 12면×2×구조(5.4mx1.3m)로 코기기는 12면×2×구조로 남편을 넓어 편성되어 기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총 26.23~24)

4) 재현 (再現 representation) ; 다시 나타남. 미학상(美學上)의 개념으로 재현에는 주로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현실대상과 닮은 상(像)을 만드는 것으로 모방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언어이나 음악처럼 반복되어지는 작품의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

학상(美學上)의 개념으로서의 재현은 ‘현실대상과 닮은 상(像)을 만드는 것’으로 ‘모방’(imitation; copying)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적, 문화재 등의 일부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의미의 ‘복원’(復元;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이나 나타냄 또는 나타내는 것. 예술창작에서의 좁은 뜻의 예술적 표현에는 표출(expression)과 묘사(description)를 뜻하는 표현(表現 expression)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막과 성막 기구들의 당시 상태를 성경 및 신학서 등의 고증적 자료를 통하여 최초로 설계도면에 의하여 정리한다는 의미로서의 용어에 있어서 ‘Representation Drawing’을 ‘표현도면’이나 ‘표현설계’보다는 ‘재현설계(再現設計, Representation Drawing)⁵⁾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 된다.

(2) 재현설계 기본방향

성막건축의 재현설계에 있어서 재현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기본방향은 성막건축의 재현설계도의 기준설정에 앞서서 성막건축의 형태와 문양 등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재현설계의 기본방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설계의 치수, 형태, 재료, 문양 및 색채 등 모든 요소들은 성경을 기초로 한다.

2) 성막의 건축 및 기구(성구)의 설계치수는 성경에 사용된 수(數)의 범위로 하며 성경의 치수단위인 1규빗(Cubit)을 45cm로 환산한다.

3) 성막의 각 부분(건축, 성구)의 문양은 인위적이고 상상적인 문양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오직 성경의 기록과 신학적 기초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4) 기존의 성막자료들(모형, 전시관, 사진, 그림 등)의 건축적 미비점 및 오류사항은 이스라엘 현지조사를 통하여 수집되고 검토된 근거자료에 의해 수정, 보완하여 설계도면에 적용한다.

5) 성막의 설계는 모형제작이 아닌 실제시공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당시의 지리적여건 및 기후 등의 자연적 환경과 함께 건축기술 및 시공법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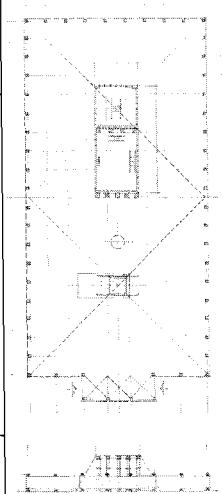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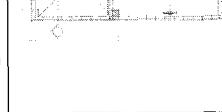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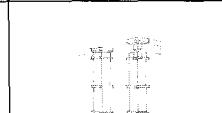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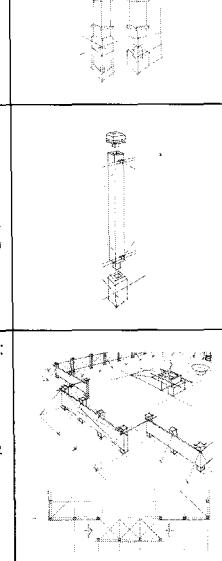
6) 수집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이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라 성막건축 재현설계의 기준을 설정한다.

(3) 성막건축 재현설계의 기준설정

성막건축 재현설계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성막건축의 재현설계 기준설정」의 부분을 1. 성막전체 평면 및 입면도, 2.

성소 및 지성소의 평면도 및 입면도, 3. 성막문 및 올타리 상세도, 4. 성소 및 지성소의 연결 부분상세도로 나누어 도표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성막건축 재현설계의 기준설정

순서	재현설계 (건축부분)	재현설계 요구사항	재현설계의 기준설정 (성경적 근거)	이미지 (재현설계)
1	성막평면도 및 입면도	성막울타리의 전체 치수	1) 100규빗 × 50규빗 × 5규빗(세마포 높이) (45m × 22.5m × 2.25 m)	
		울타리기 통의 개수	1) 기둥의 개수(총 56개) 남북: 각각 20개 동서: 각각 10개 세마포 높이: 5규빗(2.25m) 2) 건축적 평면 및 입면상 4면 코너의 4개 기둥이 중복되므로 총 울타리 기둥의 수는 56개이다.	
		울타리와 성소와의 비례	1) 번제 단과 지성소를 중심으로 한 비례(평면도 참조)	
2	성소 및 지성소의 평면도 및 입면도	성소와 지성소의 평면과 건축적 비례	1) 성소(지성소)의 평면도 12규빗(5.4m) × 30 규빗(13.5m) 2) 성소(지성소)의 입면도 넓판: 12규빗(4.5m) × 12규빗(4.5m)	
		성소와 지성소의 각 기둥 연결구조	1) 기둥머리와 가름대의 연결 (천정부 structure)	
3	성막문 및 올타리 상세도	올타리 기둥의 형태 및 치수	1) 기둥의 형태: 사각기둥 2) 치수: 높이 5규빗 (세마포장 기준)	
		성막문의 방향 및 치수	1) 문의 설치 방향: 울타리 바깥방향 2) 문의 폭: 20규빗(9m) × 5규 빗(2.25m) 3) 문의 기둥 수: 5규빗(2.25m) × 4 개	

5) 용어의 사용; 한국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3년 4월호 .vol.37 ;<해체 주의 이후 건축디자인 도면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문은미 p.01 (...표현도면(representation drawing)을 독창적인 의사전달과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개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건축가 개개인의 도면에서 출발한다. 표현도면은 기술적으로 고정된 수단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역량에 따라 ‘진보하는 프로세스’이다. ... (중략)... 디자인 도면들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건축 형태와 내용의 틀로 분석하여 표현도면이 건축디자인 창조의 중요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4	성소 및 지성소의 연결 부분 상세도	널판의 연결 상세	1)성소의 서축의 모서리 부분 2겹 널판의 연결 상세 폭1.5규빗(675m m)×높이10규빗(4.5m) 2)총 48개 널판의 연결 상세(각 넓판별 2개의 축과 5개의 띠로 연결) 3)넓판받침과 넓판의 연결 상세(넓판 하부 2개의 축과 2개의 넓판받침으로 연결)	
		성소기둥	1)성소의 기둥 :5개 2)지성소의 기둥 :4개 3)기둥머리와 기둥 그리고 기둥받침의 3부분으로 나눠짐	
		지성소부분 상세	1)지성소의 서축면 좌우 모서리 널판 및 지성소기둥연결 상세(기둥 가름대 포함)	
		성소부분 상세	1)성소 전면 기둥과 가름대의 연결상세 2)성소기둥받침의 연결 상세 3)기둥 및 널판의 받침 높이는 1규빗 (45cm)로 25cm는 땅에 묻히도록 함.	

(그림출처: 본 논문 재현설계도)

(4) 성막기구(성구) 재현설계의 기준설정

성막건축 재현설계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성막기구(성구:聖具:sacred utensils) 재현설계의 기준설정」의 부분을 1.번제단, 2.물두명, 3.정금등대(금 촛대), 4.진설병상(떡상), 5.분향단(금 향단), 6.법궤(언약궤) 및 속죄소(은혜소)로 나누어 도표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성막기구(성구)의 재현설계 방향설정

순서	재현설계 (성막기구)	재현설계 요구사항	재현설계의 기준설정 (성경적 근거)	이미지 (재현설계)
1	번제단	번제 단의 차수	1)5규빗(2,250mm)×5규 빗(2,250mm)×높이3규 빗(1,350mm)	
		토단의 형태 및 높이	1)한쪽 경사면의 형태 2)토단의 규격: 높이3규빗(1,350mm)	
2	물두명	물두명의 차수 (반경)	1)지름이 3규빗(Ø1,350mm)× 높이 2규빗(900mm)	
		정금등대의 차수	1)높이3규빗(1,350mm) ×폭2규빗 (900mm)	
	정금등대(금 촛대)	등대의 가지부분 및 받침의 형태	1)7개의 가지의 형태: 살구꽃의 꽂받침과 꽃모양 2)전체 및 받침의 형태: 티투스의 개선문에 조각된 형태재현	
		진설병상의 차수	1)길이 2규빗(900mm)×폭 1규빗(450mm)×높이 1.5규빗(675mm)	
		탁자의 턱 및 다리의 형태	2)탁자의 턱: 위의 네 방향으로 손바닥 넓이(Hand breath (托파): 7.4cm)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턱를 만듦 3)하단부의 형태: 사각형태	
	분향단 (금 향단)	분향단의 차수	1)가로1규빗(450mm) ×세로1규빗(450mm) ×높이2규빗(900mm)	
		하단부의 형태	1)하단부의 형태: 사각형태	
	속죄소 (은혜소)	속죄소의 차수	1)길이 2.5규빗(1,125mm)× 폭 1.5규빗(675mm)×높이1 규빗(450mm)	
		속죄소의 형태	1)법궤의 뚜껑 부분 2)두 그룹(사람의 형상)이 날개를 맞대고 앉아 있는 형상	
	법궤 (언약궤)	법궤의 차수	1)길이 2.5규빗(1,125mm)×폭 1.5규빗(675mm)×높이 1.5규빗(675mm)	
		법궤의 형태	1)법궤의 하부 2)정금으로 안팎이 쌓여 있고 금으로 된 테두리의 형태	

(그림출처: 본 논문 재현설계도)

5. 결론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최초의 교회건축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교훈적인 의미를 지닌 모범적인 교회건축의 모형이라는 전제하에 먼저 1)성막에 대한 건축학적 개념과 성막에 적용된 건축적 도량형(度量衡 weights and measures)을 중심으로 성막을 건축학적으로 연구하고, 2)성막건축의 기능과 구성요소들을 고찰하며, 3)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건축의 건축학적 의미와 설계와 건설부분을 건축적으로 분석하고, 4)성막건축의 표현특성도출과 「재현설계의 기준설정(再現設計의 基準設定)」을 하였다.

아울러 이스라엘 현지답사를 통해 기존 성막모형의 설계 및 관련 역사적 고증들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5)성막건축의 재현을 위해 작성된 성막의 「재현설계도(再現設計圖)의 제시」를 통하여 성막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의도에 의해 설계되고 건축된 최초의 교회건축물이며 건축학적으로 인간이 만든 어떤 건축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라는 「건축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성막건축의 표현특성과 「재현설계의 기준설정(再現設計의 基準設定)」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적 정체성을 정립을 목적으로 한 「성막건축의 재현설계도(再現設計圖)」를 통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막건축의 평면배치」는 남북방향 100규빗(45m), 동서방향 50규빗(22.5m)로 하며 이를 이등분한 50규빗(22.5m)×50규빗(22.5m)의 두 개의 정방형을 합친 형태로 1)성막뜰과 2)성소 및 지성소 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별되어 계획하여야 한다.

1)성막뜰 부분의 정방형에는 중앙에 번제단을 중심으로 동측에 성막문(성막 뜰문), 좌측에는 물두명을 같은 선상에 배치하며 2)지성소 포함의 정방형중앙에는 속죄소와 범궤를 배치하고 성소에는 문을 중심으로 좌측(남쪽)에는 정금등대를 우측(북쪽)에는 진설병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중앙부 곧, 지성소의 휘장 앞부분(정면)에는 분향단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막평면도의 기구(성구)의 배치는 성소를 중심으로 각각의 기구(성구)가 같은 선상의 십자형으로 배치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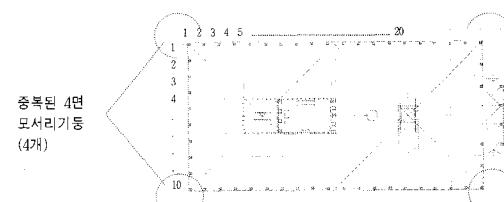
- 성막뜰(100규빗×50규빗)(45m×22.5m) : 성막뜰문, 번제단, 물두명
- 성소 및 지성소(12규빗×30규빗)(5.4 m×13.5m) :
 - 성소(12규빗×12규빗)의 정방형 : 정금등대, 진설병상, 분향단
 - 지성소(12규빗×18규빗)의 직방형 : 속죄소, 범궤

둘째, 「성막건축의 울타리기둥」은 성경 출애굽기(출27:9~13,27:18)에 기록에 의해 배치되어야 한다.

성경 상 성막 울타리 기둥의 개수는 동,서측 울타리 각각10

개 남,북측 울타리 각각20개로 기록되어 있고(출27:9-13) 울타리 기둥의 총 개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막 울타리 기둥의 4면의 개수는 건축적인 「평면 및 입면상의 개수」로 보아야 한다. 즉 건축의 입면상으로 울타리 기둥은 남북 방향에 각각 20개, 동서 방향에 각각 10개의 기둥이 배치되나 4면 코너의 4개 기둥이 중복되므로 총 울타리 기둥의 수는 56개이다. 따라서 「총 56개의 울타리 기둥」으로 첨부된 재현설계도와 같이 계획 되어야 한다.

- 울타리기둥(동,서) : 입면상 각각 20개 ($20\text{개} \times 2\text{면}=40\text{개}$)
- 울타리기둥(남,북) : 입면상 각각 10개 ($10\text{개} \times 2\text{면}=20\text{개}$)
- 총 울타리기둥의 개수 : $60\text{개}-4\text{개}(4\text{면 코너의 중복된 기둥 수})=56\text{개}$
 (※ 건축적 평면 및 입면상 4면 코너의 4개 기둥이 중복되므로 총 울타리 기둥의 수는 56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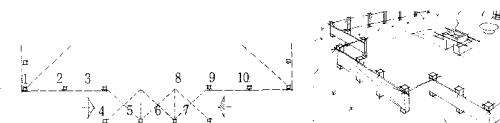
<그림 5> 성막건축의 평면 및 울타리기둥의 배치도

셋째, 「성막뜰문」은 성경기록에 의해 휘장 폭 20규빗(9m)의 4개의 기둥으로 구성하되 울타리와 분리되어야 하고 뜰문의 좌우휘장 폭은 15규빗(좌,우 6.75m)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동쪽 성막울타리와 성막뜰문은 출애굽기 27장 14-16절(문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십 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꼬 배실로 수놓아 짠 이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찌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과 같이 바깥 방향으로 「분리된 형태의 성막뜰문」이 울타리와 분리된 형태로 계획되어야 하며 기존 성막모형들과 같이 울타리와 성막뜰문이 일체형으로 계획되어서는 아니 된다.

- 성막뜰문 : 4개 기둥(휘장폭 20규빗)
- 뜰문좌우 양면 : 각각 3개 기둥(휘장폭 15규빗) $3 \times 2 = 6$ 개 기둥
- 동측 뜰문이 있는 울타리기둥의 총 개수 : 10개

(단, 뜰문좌우 바깥의 기둥 2개를 뜰문과 뜰문좌우의 기둥으로 중복(重複)하여 계수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평면상 3, 4번과 7,8번 기둥이 입면상으로는 중복되고 평면상으로는 바깥 방향으로 분리된 형태의 성막뜰문으로 되어야 한다.)



<그림 6> 성막뜰문의 평면(좌)과 투시도(우)

넷째, 「성막건축의 성소 및 지성소의 크기」는 동서측 12규빗(5.4M)× 남북측 30규빗(13.5M)이며 지성소의 치수는 12규빗(5.4m× 5.4m)의 정방형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성소 및 지성소널판」의 총 개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적으로 48개(20(남쪽)+20(북쪽)+8(서쪽)=계48)의 널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서쪽널판 8개중 양측 모서리 2개의 널판은 2겹 두께로 되어야한다(출26:23~24). 또한 성소(지성소)의 벽체를 이루는 널판은 하나의 널판 폭이 1.5규빗(675mm)으로 남북의 널판이 각각 1.5×20=30규빗(13.5m), 서쪽 널판의 폭은 1.5×8=12규빗(5.4m)으로 -기존 성막모형들의 성소 및 지성소의 크기인 동,서측 10규빗(4.5m)× 남북측 30규빗(13.5m)의 크기 즉, 10규빗×10규빗의 정방형을 3개를 합친 형태가 아닌- 지성소 12규빗×12규빗(5.4m× 5.4m), 성소 12규빗× 18규빗(5.4m×8.1m)으로 성소는 직방형으로 지성소는 정방형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서쪽널판의 좌우 모서리 널판은 성경의 출애굽기 26장 22절~24절(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해서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해서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 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여...)의 기록과 같이 2겹 두께의 널판으로 제작하여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남쪽 널판 : 1.5규빗(1개널판 폭)× 20개널판= 폭 30규빗
- 북쪽 널판 : 1.5규빗(1개널판 폭)× 20개널판= 폭 30규빗
- 서쪽 널판 : 1.5규빗(1개널판 폭)× 8개널판(6개+ 2겹널판 2개)= 폭12규빗
(단, 서쪽 널판의 개수는 8개이나 좌우 모서리 편 2개의 널판은 두 겹의 두께로 지성소의 기둥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림 7> 지성소의 두겹널판 상세도(좌)와 지성소의 평면도(우)

다섯째, 「성소의 5기둥과 지성소의 4기둥」의 가름대(출36:38)는 성소 및 지성소의 좌우벽체 역할을 하는 널판의 상부에 측으로 고정시켜 널판과 기둥들을 연결하는 보(Girder)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기둥들은 출36:36~38의 기록과 같이 기둥머리(오더), 기둥(중간부), 기둥받침(하부)가 분리되어 각각의 측으로는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져야 하며 기둥의 오더(성경기록에는 '기둥머리'로 나옴)는 코린티안오더(corinthian order)등과 같은 이교도의 건축이나 이방신전의 기둥의 형태를 모방한 일체의 세속적인 문양이나 장식을 배제하여야 한다.

여섯째, 「성막건축의 기초부분」인 성소 및 지성소의 널판받

침이나 기둥받침 그리고 성막 울타리의 기둥받침은 기존의 성막모형과 같은 구조(지면에 올려놓은 형태)가 아닌 건축물의 기초와 같이 지면에 줄기초와 독립기초의 형식으로 견고히 지면에 매립되는 건축적 구조이어야 한다.

일곱째, 「성막건축의 각 기구(성구: Sacred Utensil)」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치수에 의하여 특별히 문양이나 장식을 지정한 정금등대(금촛대)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세속적인 장식이 배제되어야 하며 속죄소의 두 그룹은 높이 1규빗(450mm)으로 하고 새(birds)를 비롯한 다른 조류(鳥類)의 형상이나 추상적 형태가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마주하여 속죄소를 내려다보는 모습이어야 한다(출25:17~22).

성막건축은 최초의 교회건축으로서 현대와 미래에 이르는 모든 교회건축의 모범이므로 성막건축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표현특성」이나 설정된 「재현설계 설계기준(設計基準)」은 물론 성막건축의 설계(設計)와 성막건축의 구조(構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형(模形)을 제시하고자 하신 성막건축의 「건축적 정체성」이 현대 교회의 건축계획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접목되어지기를 희망하며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되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NIV한영해설성경 편찬위원회, NIV한영해설성경, 아가페출판사
2. 강문호, 성막으로 예수를 말한다, 한국가능성계발원, 2002
3. 한익희, 눈으로보는 그리스도, 큐란출판사, 2002
4. J. Rouw, 황금의 집, 전도출판사, 1981
5. Michael J. Croshie, Architecture For The Gods, The Images Publishing, 1999.
6.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1878.
7. J. Strong, The Tabernacle of Israel in the Desert, 1888.
- 8 Dr. Tim Dowley, The Tabernacle, 2002
9. Melechet hamishkan, The Tabernacle, 1969
10. 폴엠제이, 성막의 개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5

<접수 : 2006. 12. 30>